한전, 지역진흥사업 투자 계획 무엇을 담았나

기업 유치·대학 인재양성·삶의 질 개선 집중 투자

중소기업 육성펀드 조성해 이전기업 대출이자 지원

창업·보육센터 역할 '에너지밸리 센터' 등 38개 사업

한국전력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지역에 '전력수도(電力首都)' 건설을 본격화한 것은 본사 이전 이후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에너지 기업으로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빛가람 지역(나주, 광주·전남지역)에 대해 '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대학·주민 3대분야, 38개 세부사업에 총 12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에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66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육성펀드(2000억원)를 조성해 출연금 이자수익을 활용, 이전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에너지밸리 센터'를 건립해 '기업 이전·창업·보육센터' 및 'R&D(연구·개발) 센터' 역할을 병행 수행토록한 점도 주목된다. 또 해외 수출촉진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동반성장 Festival(페스티벌)'을 개최해 R&D 성과물을 전시·홍보하는 한편, 수출계약 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을 키우고 한전 해외사업에 필요한 에너지특화 전문인재를 육성하는데 61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역 대학과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 R&D를 공동 수행하기로 하고, 추가 연구과제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빛가람 국제 발명대전'을 개최해 세계 최초로 전력분야의 신기술 박람회와 컨퍼런스를 동반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력기술 캠프, 필리핀 등 해외사업 진출국 대상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 경제·문화·환경분야의 지원·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사업에도 589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한전측은 지역주민 친화사업으로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파크'를 조성하고 공항과 역, 터미널 등 주요 거점지역에 전기차·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전력거래소, 한전 KPS, 한전 KDN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심야난방 기기 교체 지원 및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위치 확인 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나주 변전소 옥내화 및 철탑 도색, 나주 금성관 주변 지중화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 미관 개선을 위한 '친환경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자금 대출지원 펀드 조성, 나주지역 1처 1촌 자매마을(36개) 결연,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예정돼 있다.

지역진흥사업과 함께 한전은 광주·전남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 및 보수예산을 전년대비 1348억원(34%) 증액 편성했다.

한전은 대불 산업단지 노후 개폐기 교체 등 정전 예방을 위한 설비 보강 예산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시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기 구현을 위해 국내 부사장 주도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 TF'를 구성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지자체·이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갖췄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빛가람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광주·전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공동 발전하는 스마트 에너지 허브 구축 사업이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20일 오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지역진흥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편, 한전은 지난해 12월1일 본사 이전 이후 KT와의 '빛가람 에너지밸리 스마트그리드 협력사업 방안' 공동발표, 전남대와 MBA과정 개설 MOU 체결, '4대 지역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이달내 분양

미분양 6개 필지 25만㎡ 77개 필지로 세분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내 미분양 용지에 대한 세분화, 규제 완화 등 변경 절차가 이달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남도, 광주시, 시행사 등 관련 기관들은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나오는대로 토지분양 공고를 낼 예정이다.

20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터 41만4000㎡(12만5000평) 가운데 미분양된 6개 필지 25만1000㎡(7만6000평)을 모두 77개 필지로 세분화하고, 유치업종을 추가하는 등 변경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기존 안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에 지식산업, 첨단산업, 정보통신산업, 창업보육 등 4개 부문 업체 및 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신성장 동력, 병원, 특성화고, 대학 산하 연구기관 등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 개별 필지별로 유치업종 1·2순위가 접수하지 않을 경우 3순위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구별 유치업종을 완화해 분양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와 광주시, 혁신도시지원단, 나주시 등은 최근 토지 분양 및 시기를 위한 협의에서 이달 내에 토지분양 공고를 내기로 했다.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에 나서 최대한 투지세력의 개입을 예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국토부의 인가가 나오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준공예정 2015.05), 한국인터넷진흥원(착공예정 2015.0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착공예정 2015.08) 등 미이전 공공기관을 방문해 조기 이전을 독려하는 한편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 의견 및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5월부터 2층 버스 타고 '여수 밤바다' 본다

여수엑스포-수산시장-돌산공원 등 순회 하루 8차례 운행

남해안 최고 관광지로 떠오른 여수에 또 하나의 명물이 등장한다.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여수밤바다로 주목받는 여수시에 오는 5월부터 도심순환 2층 관광버스가 운행된다. 여수시는 2층 천장이 개방된 유럽형 모델로 최신 사양을 갖춘 '도심순환 2층 관광버스'를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스는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오동도, 수산시장, 돌산공원 등 도심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형태로 하루 8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요금은 1회 3000원, 종일권 5000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22일 여수시 돌산청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에 이어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공모 참여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한정면허 요건을 갖추고 여수에 사무소를 둔 업체라야 한다. 업체는 다음달 10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도심순환 2층 투어버스 노선도

○ 승강장 위치

여수엑스포역→아쿠아리움→오동도 → 하멜기념관→이순신광장(진남관)→여객선터미널(수산시장)→돌산공원 입구(케이블카)→여수엑스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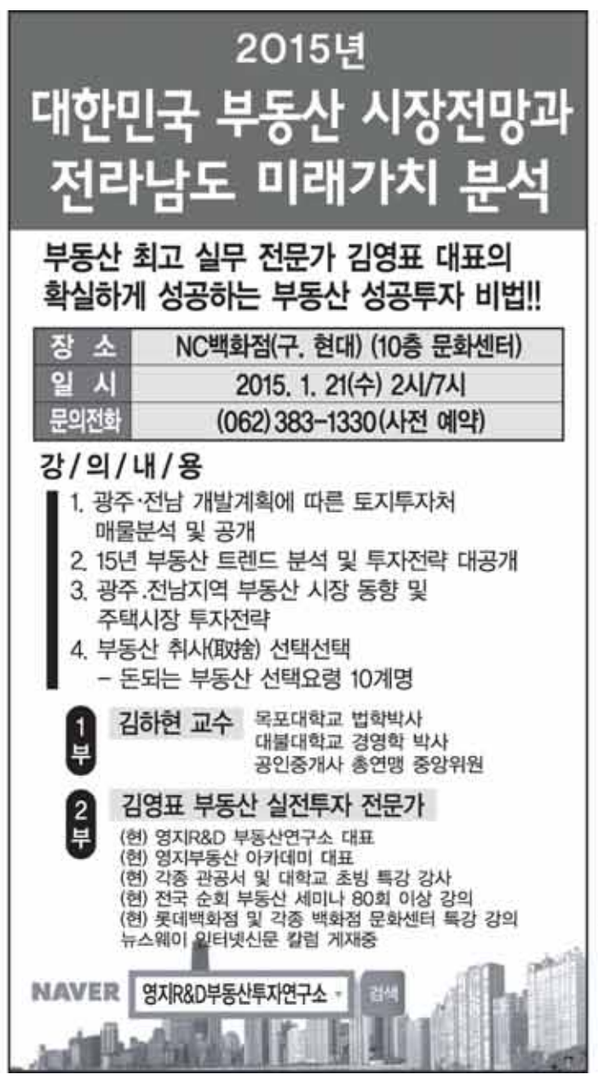
'정율성 생가 논란' 법정서 판가름 딸 정소제 여사, 광주시에 확인 소송

정율성 생가 논란이 후손의 소송 제기로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율성 선생의 외동딸인 정소제(72) 여사가 지난달 19일 광주시를 상대로 선친의 출생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 여사는 부친의 자필이력서, 회고록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광주 남구 양림동이 부친 출생지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구성한 고증위원회가 2010년 광주 동구 불로동을 부친 '출생지'로, 양림동을 '성장지'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고증위원회는 당시 현장 검증과 관련 증언 청취 등을 통해 "불로동은 정율성 선생 부모의 본적지고 정율성 선생이 출생한 곳이며, 양림동은 정율성 선생이 성장한 곳"이라며 양쪽을 '생가'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남구와 정율성 선생의 후손들은 광주시의 이 같은 결정이 논란을 오히려 키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